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상처받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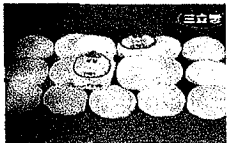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큰소리 치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해 남을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골방기도를 하며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서로 싸우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면서
 선교만 이야기한다면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좋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존경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나온 삼립 호-빵
 삼립식품공업회사
 TEL 3961-7

◀그면 그랬지▶ "삼립 호빵"
 호호 호호호 호호호빵/빵빵빵 호호빵 삼립빵
 호호 호호호 뜨거워라...
 CM송 가사가 거의 "호"와 "빵"으로만 이어지던 삼립 호빵!
 김이 서려있는 호빵 통을 밖에다 놓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가게 주인과의 기싸움으로 지내던 겨울, 그때가 그리웁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s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27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7월 6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시골에 배당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고 난후 약 10 분정도 지났을 시간 즈음에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산골 교회야 인원이 뻥한데 세 사람이나 들어서니 갑자기 교회가 확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울에 계시는 장로님의 가족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려 하는데 장로님의 따님이 앞으로 나와 피아노 앞에 앉더니 찬송가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 때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그 우아한 음률,,,,, 얼마나 행복 하던지요. 한참 예배드리는 중에 저의 아내가 예배드리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했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조금이 지나자 다시 들어와 예배를 드리더군요 .

예배 후 장로님 가족과 인사 나눈 후 아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 당신은 예배도중에 어디를 다녀 온거요,?"
 "너무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로 찬송가를 불렀더니 눈물이 앞을 가려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죠....."

전 아내의 말을 듣고 저도 같은 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골교회는 피아노가 있어도 반주자를 만나기가 너무 귀합니다. 중고등학생중에 피아노 치는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몇 만원 주고 데리고 올려고 구해보았지만 반주자 보다 중고등학생 구경하기가 더 힘드니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없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기도 할 장로님 한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만, 아니 주일 학교 교사 한 명만 있었음,,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지요.

전에는 피아노 반주소리가 아름다운 줄 느끼질 못했습니다. 너무 흔하게 자주 듣다보니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산골에서 오랜만에 피아노 반주로 찬송가를 부르니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줄 이제야 깨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고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줄을 잊고 사는 우둔한 존재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공부다는
 여우가 낫다는 속담 아니?
 좋은 사람보다는
 상냥한 여성이 되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보고
 늙었다고 말하지 마라
 여성은 죽을 때까지
 20대의 마음으로 살아간단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 (시편 16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4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장현중 협동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1:17-2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님은 누구신가(7) 나는 부활이요 생명'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18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 자원봉사(화장실)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7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6	장현중	서동완	자원봉사(화장실)	박 실, 박일영
13	정덕수	송영철	탄생축하	박재양, 박태원
20	정희자	신영화	김홍구, 윤경례	송영철, 서동완
27	지찬영	양경배	민병구, 조미애	양경배, 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 (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해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이사> 안원희, 손길숙 집사. ☎836-2887 ✉240 Te Atatu Rd. Te Atatu South
 <발표회> 윤형권 집사. "가곡교실&문하생": 12일(토) 저녁 6시. 본당
- 정기 구역예배: 이번주일은 구역예배 주간입니다(금요일)
- 토요일결식자 봉사: 12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담당>토요일결식 자원봉사자
- 아동부 방학Activity: 유치, 유년부 아동들의 영화관람
 *10일(목) 오전 10:10. HOYTS 극장 안에서(Glenfield). <회비> \$5
- 중고등부 수련회
 <일시> 7월 7(월)-9(수) <장소> Houghtons Bush Camp(Muriwai Beach)
- 영화클럽 "추억보기": 오늘 Tea Time후
 <제목> "돌아오지 않는 해병". 한국영화의 대표적 고전작이죠.
 장동휘, 최무룡, 구봉서, 이대엽등 아직 이 배우들이 생존해 있는지요?
 그때 이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이 박수도 쳤을 만큼 영화가
 여가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 다음주일은 우리교회 4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예고: 다음주일 예배 후 City에 있는 YMCA 실내 체육관에서 생일자축
 운동회를 함께 갖겠습니다.
- 다음 주일은 "성문 밖 주일": 4번째 맞는 우리교회생일! 우리만 스스로
 좋아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주일 헌금은 (1) 민지영 선교사 혹은
 (2)개인적으로 보내고 싶은 곳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 연합신앙부흥회(예고): 갈보리, 임마누엘, 주님의교회, 은혜와진리, 은누리,
 영락, 오성, 샘이깊은, 로드니. <장소>주님의교회
 <일시> 7월 29(화)-30(수) 저녁 7:30 <강사>이연길 목사(델리스 빛내리교회)

◀착한 시인들▶ 겨울 밤
 -박경중-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춤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웅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뽕뽕 가랑잎이 우는 밤
 뽕뽕 춤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화롯가에서
 모두 울망줄망 모여서
 호호 밤을 구워 먹지요

참 추웠던 지난 주간, 남섬에는
 눈도 오고 얼음도 얼었다는 소
 식이 들립니다.
 토방에 쌓인 눈이 발목을
 시리게하며 훌쩍리던 추운 저녁,
 처마에 걸어 놓은 시래기 다발
 이 흔들리며 소리내던 겨울 밤,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지 않던
 삭풍의 새벽 길, 어느것 하나
 잃어 버리기 싫은 겨울밤의
 초상화입니다.